

金星 하니웰의 「청률회」



일과후 단소 강습에 몰두중인 「청률회」 회원들

첨단 산업과 최신 유행의 틈바구니에서 가슴을 에이는 듯한 우리의 가락을 배우는 금성하니웰의「청률회」는 단소 가락에 심취한 멋쟁이들의 모임.

작년 9월에 조직되어 4개월밖에 안되었으나 그 어느 모임보다 활발한 활동과 진목을 도모하고 있다. 전통적인 우리 가락이 외면당하는 요즘 조금이나마 우리 가락을 체험하고자 하는 「청률회」의 단소강습은 다소 이색적인 모임이 아닐 수 없다.

금성하니웰은 금성과 미국의 하니웰사가 50대

50으로 투자해 세워진 자동제어시스템회사. 회사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청률회」는 그룹 모토인 「인화단결」을 우리 가락을 배우면서 몸소 실천하고 있다.

또한 작년 10월 20일에는 야유회를 갖는데 국악모임인 「풍류회」에서 찬조출연. 해금, 양금, 단소 등을 연주해줘 더욱 신바람이 났었다고.

또 회사 강당에서 「풍류회」를 초청, 국악기 소개 및 연주회를 개최,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달에 한번의 정기모임과 1주에 3번 일과 후에 강습회를 갖고 있다. 단소 강습외에도 거

가벼워도 울지 않고 슬퍼도 저 혼자 울지 않고 건디는 맑고 청아한 단소의 선율

문고, 해금, 가야금, 양금 등 우리 고유의 악기 소개는 물론 수시로 국악 감상을 위해 국악연주회를 갖는다고.

또 올해부터는 봄·가을에 야유회를 갖고 자연과 어울린 단소 가락을 연주할 예정이고 단소 강습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기타 국악기도 강습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풍류회」를 초청 모든 사우들에게 우리 가락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단소 강습을 함으로써 사우들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회사의 발전과 능률 향상의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

며 「청률회」의 회장 정동원 사우는 1986년도 청률회의 포부를 말한다.

「어느 나라를 가봐도 그 나라의 전통 음악은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음색 및 가락의 멋들어진 선율과 화음은 외면당하고 있습니까?」라고 항변조로 말하는 「청률회」의 단소 강습을 익혀주고 있는 악장 최재희 사우는 「가장 한민족적인 문화야말로 그 독특한 개성이 범세계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순리를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단소 경력 7, 8년의 베테랑답게 우리 가락의 예찬론을 펴다.*